

북네트워크

공통의 관심사, 끊임없는 연구와 교류

취업이 인생의 마지막 관문인 듯 대학 졸업 후 직업을 갖고 나면 일반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을 멈추게 된다. 그러나 사회에 나가서도 더 배우고 더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학문과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지식을 쌓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출판계에선 그와 같은 취지로 형성된 동인 모임이 여럿 있다. 출판·편집 등 각자의 영역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교류와 정보로 자신, 넓게는 사회와 문화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활동을 주목해 본다.



연구공간 수유+너머(www.transs.pe.kr)

연구공간 수유+너머

‘지식의 즐거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적 능력의 증식’ ‘담론의 생산적 변이’. 이 세 가지를 ‘유쾌한 강령’이라 정하고 있는 연구공간 수유+너머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지식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공동체다. 1997년 7월 수유리 사무실에서 출발한 모임은 국문학과 사회학, 인문학을 결합해 새로운 지식공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1999년 첫 공개강좌를 열었고 2000년에는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임원들이 만든 연구공간 ‘너머’와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문학, 역사, 과학, 철학 등 논쟁의 여지가 있는 학문을 비롯해 외국어 원서강독반, 텍스트 중심의 연구 등 20개의 세미나가 구성돼 있고 ‘지적능력 증식’을 위해 정해진 기준 없이 언제나 개설이 가능한 강좌가 있다. 회원들 각자의 전공분야를 연구하고 발표하는 ‘화요토론회’도 2주에 한 번 진행된다.

60명이 넘는 회원들의 신분은 세미나와 강좌가 계속되면서 석·박사과정, 학부졸업생, 직장인과 주부로까지 확대됐다. 아직은 국문학, 사회학, 철학이 주축이지만 여성, 교육, 종교, 산업디자인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갈 계획인 순수 연구공동체 수유+너머는 세대와 성별을 가로질러 지적능력의 증식을 위한 새로운 지식공간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수요인문학독서클럽

국민의 평균독서량이 ‘위기’ 수준에 이른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방송 프로그램까지 나서서 독서를 ‘권유’ 하는 현실. 하지만 선정된 책은 대부분이 소설중심이어서 사람들은 인문학서를 쉽게 접하지 못한다.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겁부터 내는 사람들의 편견이 무엇보다 큰 문제다. 이처럼 문학, 실용서에 비해 인문학서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김선희(번역가) 씨가 수요인문학독서클럽을 주도하게 된 계기다.

올해로 결성된 지 만 3년을 맞은 수요인문학독서클럽은 이름 그대로 인문학서를 읽는 독서모임이다. 김씨가 북에디터 홈페이지(www.bookeditor.org)에 모집 공지를 한 첫해에는 5명의 회원이 모집됐고, 현재 활동중인 고정멤버는 8명이다. 모두 출판사 편집장이거나 번역가, 작가들이다.

매일 첫째주 수요일에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모임은 회원들이 추천한 인문학서에 대



수요인문학독서클럽
(home.freechal.com/bookwalk)

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씨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책 선정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진다”며 “처음에는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추천하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신문서평이나 리뷰와 같은 자료를 보고 각자가 후보작을 올린 후 온라인을 통한 다수결로 작품을 선정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책은 회원 모두가 한 달 안에 읽고 다음 모임 때 다뤄진다.

출판기획·번역네트워크 '사이에'

국내 출판현실은 번역의 상품성을 인정하지 않고 현지 판매율에 의지한 도서선정으로 정작 국내독자들에게 필요한 책을 골라낼 여지가 적었다. 꼭 필요한 책을 골라내는 기획자와 번역자의 역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런 시류에 발맞추고 능동적인 번역활동으로 바람직한 번역출판문화를 형성하자는 취지로 2003년 9월 8일 '사이에'가 결성됐다.

대표인 임희근 씨는 “위원들 스스로 번역할 만한 해외도서를 찾고 출판사에 추천하면서 역동적인 기획자이자 번역가로서 정당한 대가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한다.

현재도 인터넷 공간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자료공유, 분당구 서현동에 마련한 사무실 겸 작업실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기획·번역한 도서에는 기획인세가 있어 그 일부를 발전 기금으로 축적해 보다 나은 기획번역 활동의 토대로도 사용한다. 기획과 번역의 가치를 인정하는 출판계가 존재할 때 독자들도 자연 책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 이는 번역은 물론 출판문화의 성장을 위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게 '사이에'의 생각이다.

최근 '사이에' 위원들이 기획·번역한 도서: 《공화국의 몰락》(툼 홀랜드 지음 | 김병화역 | 웅진) 《장지수마음마엔 이야기》(마엔 지음 | 임희근역 | 세종서적) 《영원한 기쁨》(너새니얼 호손 외 지음 | 최애리역 | 현대문학)



2004년 9월 '사이에' 출범 1주년 기념 축하 모임. (왼쪽부터 정재근 임희근 최애리 안시열 한정석 김병화, 사진을 찍은 기획·총무담당 변지영 씨)

출판제작모임

지난 2000년, 출판제작 자체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자는 취지로 출발한 출판제작모임은 2003년 8월 14일, 3기를 기준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주)ubion 출판팀에 있으면서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탁정모 씨는 “초기에 가진 의도에서 확대돼 현재는 출판 전반에 대한 모든 부분을 모임의 논제로 수렴하고 있다”며 모임의 구체적인 성격을 밝혔다. 아이템 기획과 편집, 디자인, 제작, 마케팅과 경영전략, 원가관리 등 출판사 경영관리에 있어 실제적인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회원은 약 400여 명. 온라인 공간(www.cafe.daum.net/pupa2003)에서는 서로간의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월 2회 개최되는 세미나를 통해 더욱 구체화된다. 발제자로 선정된 회원이 출판 전반에 관한 한 가지 테마를 발표하면 이를 모든 회원들이 토론하는 형식이다. 현장 노하우의 간접 체득을 위해 출판 관련 단체나 개인을 초청해 강의를 듣기도 한다. ☞ 취재 | 홍이현 기자



출판제작모임
(www.cafe.daum.net/pupa2003)